

독서지도안

초등

지구촌 사회 학교

※ 여기 실린 독서 지도안은 10차시를 기준으로, 한 차시에 두세 가지 활동을 넣어 구성했습니다. 각 독서 지도안은 해당 도서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다른 구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급 구성과 교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골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든 독서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 (초등)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가 코끼리를 잡아먹었어요

김정희 글 | 이희은 그림



주제: 환경 오염

관련 학년: 3~6학년

케냐의 야생 동물이 위험해요!

아프리카 케냐는 야생 동물의 천국이에요. 11살 소년 와쿤구도 동물을 좋아해요. 어느 날 아기 코끼리가 혼자서 와쿤구 집 앞에까지 찾아왔어요. 아기 코끼리는 많이 아파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실수로 비닐봉지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비닐과 플라스틱이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요.

■ 들어가며

비닐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쓰인다. 이제는 상점에서 비닐봉지를 못 쓰게 하지만 그 정도로는 어렵었다는 뜻이 주위에는 비닐봉지가 가득하다. 이때 야생 동물의 천국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비닐의 제조와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킨 소식은 비닐 쓰레기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다.

■ 학습 목표

썩지 않는 비닐봉지가 자연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는지 책과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을 하는 케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아 보고 실천한다. 특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가장 앞장서고 있음을 인상 깊게 살펴보고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내는 우리의 생활 태도를 다시 돌아본다.

단계	활동 내용	차시
책 읽기 전	비닐봉지 띄우기 놀이 비닐봉지처럼 몸 움직이기	1차시
책 읽기	'하쿠나 마나타' 노래를 불러요!	2차시
	아기 코끼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2차시
	비닐봉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차시
	케냐 환경부 장관 인터뷰 하기	2차시
책 읽은 후	우리 교실에는 얼마나 비닐봉지가 많이 나올까?	주중
	비닐봉지! 우리가 나설 차례다. 하쿠나 마나타!	1차시



책 읽기 전

■ 비닐봉지 띄우기 놀이

넓은 공간에서 모두 자유롭게 선다. 비닐봉지를 주워서 바람에 날리듯 띄운다. 떨어지는 비닐봉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치거나 바람을 날려 다시 띄운다. 몇 초 동안 띄우는 데 성공하는지 재 보면서 놀이한다.

■ 비닐봉지처럼 몸 움직이기

비닐봉지처럼 몸을 움직여 보자. 흐느적거리며 느리게 움직인다. 떨어질 듯 다시 올라가면서 몸을 여기저기로 움직인다. 이때 느린 재즈 음악을 틀어도 좋다.

“우리 인류가 플라스틱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플라스틱은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비닐봉지가 나온 지 50년쯤 됐다는데 엄청나게 흔하지요? 그런데 비닐봉지는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답니다. 50년간 사용된 비닐봉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라고 질문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흉내 냈던 비닐봉지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자, 비닐봉지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며 모두 동작을 정지한다.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어디에 걸쳐지거나 할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서 “지금 이 비닐봉지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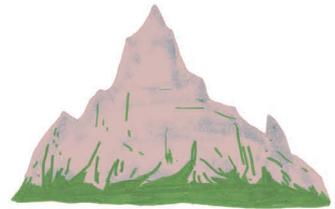
이번에는 책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비닐봉지는 코끼리를 잡아먹었대요. 어떻게 비닐봉지가 코끼리를 잡아먹었을까?”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들 나름대로 그 모양을 상상해 몸으로 나타낸다. 말 그대로는 상상하기 어렵기에 재미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구나, 왜 이렇게 표현했지?” 하고 말을 주고받는다.

책 읽기

■ ‘하쿠나 마나타’ 노래를 불러요!

8쪽까지 함께 책을 읽는다. 케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읽다가 ‘하쿠나 마나타’라는 말의 뜻을 말해 준다. 다 같이 몇 번 따라한다. 이 말은 20년 전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초원을 배경으로 한 만화 영화 <라이언 킹>에 나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을 말해 주고 <라이언 킹> 주제 음악을 들어 보자.

‘하쿠나 마나타’는 와쿤구와 할아버지, 케냐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의 말일까? 희망과 긍정, 그리고 바람의 말임을 느낄 수 있도록 신나게 외쳐 보자. 하쿠나 마나타!



■ 아기 코끼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24쪽까지 읽고 아기 코끼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상상해 보자. 그림을 그려서 아기 코끼리에게 일어났을 법한 일을 발표한다. 다 그린 그림은 칠판에 붙여 놓고 계속 책을 읽는다.

■ 비닐봉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44쪽까지 읽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비닐봉지를 먹는 동물들”을 검색하여 사진을 잠깐 보자. 비닐봉지가 가득 뭉쳐진 코끼리 똥 사진도 있다. 끔찍한 사진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케냐의 많은 동물들이 이런 처지에 놓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론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자. 모둠끼리 찾은 방법을 발표한다.

■ 케냐 환경부 장관 인터뷰 하기

뽑기를 통해 케냐 환경부 장관을 정한다. 모둠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하나씩 만든다. 교사는 대변인처럼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모둠이 질문을 만드는 동안 장관으로 뽑힌 학생에게 책 뒤에 있는 자료를 읽도록 한다. 물론 대답할 때 보고 해도 좋고 어렵거나 난처한 질문이 나오면 “대변인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교사가 즉흥적으로 대답해 준다.

책 읽은 후



■ 우리 교실에는 얼마나 비닐봉지가 많이 나올까?

우리나라도 비닐과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많은 생물들이 플라스틱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먼저 우리 교실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닐이 나오는지 기간을 정해 모아 보자. 1주일 정도 모은 비닐 쓰레기를 살펴보고 무게도 잴다. 그중에 안 써도 됐을 비닐을 분류해 보자. 특히 ‘편리’와 ‘귀찮음’ 때문에 사용한 쓰레기를 잘 찾아보자. 한 달 정도 표로 기록해 보자. 비닐 쓰레기가 줄면 가정에서도 실천해 보자.

■ 비닐봉지! 우리가 나설 차례다. 하쿠나 마나타!

집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서 크게 다짐표를 만들어 붙인다. 그리고 다같이 외치자. 비닐봉지! 우리가 나설 차례다. 하쿠나 마나타!